

광주·전남 '준비된 영웅'들 '파리 투혼' 빛났다



탁구 김경진 탁구 김정길 탁구 서수연 보치아 강선희 사격 이윤리 배드민턴 유수영 <사진공동취재단>

금1·은4·동4... '팀 코리아' 목표 초과달성 건인

장애를 넘어선 투혼으로 감동과 기적을 선사한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지난 9일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2일간의 빛나는 여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 2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목표를 5개로 잡았으나, 선수단이 이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이 금메달 6개 이상을 획득한 건 2016 리우패럴림픽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전남 '준비된 영웅'들도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따내며 '팀 코리아' 선전 예함을 보였다.



PARIS 2024

'금빛 피날레'는 한국 장애인 탁구 에이스 김경진(광주시청)이 장식했다. 김경진은 지난 8일 열린 남자 탁구 단식(스포츠 등급 4등급) 결승에서 '한술밥 동료' 김정길(광주시청)을 꺾고 올라온 세계랭킹 1위 완차이 차이웃(태국)을 제압하며 한국선수단에 6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2012 런던 패럴림픽 이후 12년 만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하며 5번째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김경진은 이혜곤(7개·탁구)에 이어 김입연(5개·사격)과 함께 패럴림픽 대한민국 최다 금메달리스트 2위에 올라섰다. 김경진은 경기 후 "나와 (김)정길이는 원팀이다. 10여년 간 광주시정팀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복식 파트너로, 때로는 선의의 경

'금빛 피날레' 김경진, 통산 5번째 금...최다 금메달리스트 2위 이윤리, 한국 선수단 첫 메달...서수연·강선희 '멀티 메달' 선전

쟁자로 함께해왔다"며 "결승전 직전 정길이가 상대 대처법과 약점 등을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 이 금메달은 나와 정길이가 함께 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수연(광주시청)은 윤지유(성남시청)와 호흡을 맞춰 한국 탁구 첫 은메달을 수확했다. 서수연-윤지유 조는 여자복식(WD5 등급) 결승전에서 중국의 류징-쉐위안 조에게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해 은메달을 확보했다. 서수연은 앞서 탁구 여자 단식 스포츠등급 WS1-2류징과 준결승에서 세트 점수 2-3으로 패하며 동메달을 확보,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박진철(광주시청)도 차수용(대구시청)과 팀을 이룬 남자복식 MD4에서 동메달, 김

정길(광주시청)은 남자 단식 MS4에서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다 우연한 계기로 2017년 불혹의 나이에 보치아에 입문해 이젠 대한민국 대표 보치아 선수가 된 강선희(한진KPS)는 생애 첫 패럴림픽에서 BC3 종목 혼성페어 은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한국선수단 중 최고령이자 이번 파리 패럴림픽을 마지막 패럴림픽이라고 언급한 양궁 김옥금(광주시청)은 4위(W-1 개인·혼성단체)를 기록하며 마스트 맨스를 마쳤다. 이밖에 지난해 장애인사격 최초 전국장애인체전 5관왕을 달성한 사격 박동안(광주시청)은 R4-공기총합사 7위, R5-공기총합사 12위를 기록했고, 장애인육상 투척 종목 최

초 패럴림픽에 참가해 투포환 5위를 기록한 정지승(삼호개발)은 생애 첫 패럴림픽 참가를 경험하며 2008 LA 패럴림픽을 기약했다. 장애인조정 김세정(롯데케미칼)도 싱글스킬 5위를 기록, 2012년 런던 대회 남자 싱글스킬 5위에 오른 박준하 이후 12년 만에 조정 결선에 진출하며, 4년 뒤 더 높은 곳을 기약했다. 전남에서는 2008 베이징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이윤리(완도군청)가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이윤리는 사격 R2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 결승에서 246.8점을 쏘 은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 차세대 스타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재근(울산 중구청)과 함께 출전한 남자 복식(스포츠등급 WH1-2) 결승에서 중국의 마이젠펑-취쯔모조에 패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최강 팀을 상대로 분투한 유수영과 정재근은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희중기자

'뭉치면 더 강하다'...김국영·이재성·강의빈·김태호 400mR '적수없다'

광주시청, 실업단대항육상 '금빛 레이스'

강다슬, 여자 100m 우승·이재성, 남자 100m 2위·노현진, 여자 1만m 3위

광주시청 육상팀이 전국체전 전초전 성격의 국내대회에서 메달 레이스를 펼치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국영·이재성·강의빈·김태호가 호흡을 맞춘 남자 400m 계주팀을 비롯해 강다슬, 이재성, 노현진이 10일 서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56회 KTFL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했다.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국내 여자 단거리 1인자인 강다슬이다. 강다슬은 여자 100m 결승에서 11초84를 기록, 이현희(안동시청·11초85), 강다정(안동시청·12초08)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라인을 통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강다슬은 예선에서 12초10을 기록하며 결승에 올랐었다.



10일 열린 제56회 KTFL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인 광주시청 육상팀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부상으로 재활중이던 강다슬은 체전을 앞두고 컨디션 회복에 주력,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을 점검했다. 남자 400m 계주에서는 김국영·이재성·강의빈·김태호가 호흡을 맞춰 압도적인 1위 레이스를 펼쳤다.

광주시청은 400m 계주 결승에서 39초28을 기록, 2위 서천군청(39초98), 3위 안양시청(40초65)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재성은 남자 100m에서 10초 33을 기록, 주지명(경주시청·10초19)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3위는 박시영(포항시청·10초37)이 차지했다. 광주시청 김태호는 결승에 올랐으나 파울로 실격됐다. 여자 1만m에서는 노현진이 입상에 성공했다. 노현진은 35분46초25로 피니시라인을 통과, 안슬기(삼천진자·35분25초38), 임경희(삼척시청·35분25초52)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전국체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초전 성격인 실업단대항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점검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목포해양대 조정, 종합 준우승

k-water 사장배 전국대회...박지성·이성현 대회 2관왕

국립목포해양대 조정팀이 제21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국립목포해양대 조정팀은 지난 8일 경남 김해 대동생태체육공원 조정경기장에서 끝난 대회 중량급 싱글스킬과 경량급 싱글스킬, 중량급 더블스킬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적수가 없는 1학년 박지성과 이성현이 대회 2관왕에 오르며 팀 선전을 견인했다. 박지성은 중량급 싱글스킬에 출전해 7분21초53으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제66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와 제4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조정대회에 이어 남대부 중량급싱글스킬에서 이 중목 우승을 차지한 박지성은 시즌 3관왕을 달성했다. 이성현은 경량급 싱글스킬에서 8분 20초0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지성·이성현은 중량급 더블스



제21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목포해양대 조정팀. 왼쪽부터 박지성, 김아름 감독, 이성현. <전남도체육회 제공>

결에서도 환상호흡을 과시하며 6분56초7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박희중기자

한국 야구, 프리미어12 앞두고 쿠바와 두 차례 평가전

한국 야구대표팀이 WBSC 프리미어12를 앞두고 쿠바 대표팀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컨디션을 점검한다. KBO는 10일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이 오는 11월1-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아마야구 최강국인 쿠바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전은 올해 맺어진 양국의 수교를 기념하고 팬들에게는 국가대

항전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팀이 국내에 쿠바를 초청해 친선 경기를 치르는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며 통산 세 번째다. 세계 야구랭킹 8위인 쿠바는 지난해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전에 출전할 한국 대표팀 명단은 추후 발표된다. /연합뉴스

무안군청 검토, 추계전국실업대회 단체전 우승

대회 2연패 쾌거...주장 유하늘 개인전 동메달

무안군청 검토팀이 추계전국실업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무안군청 검토팀은 지난 8일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1회 추계 전국실업검도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천시청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무안군청은 16강전에서 충남체육회를 3대2로, 8강에서 용인시청을 2대1로 꺾었다.

이어 수원시청과의 준결승전에서 2대2 동점 상황에서 힘겹게 한 포인트 승리로 결승에 오른 무안군청은 인천시청을 상대로 마지막 승부에서 김한범의 손목치기 승으로 3대2 승리를 거뒀다. 주장 유하늘은 개인전 6단부 8강전

에서 방지훈(광명시청)에 1대0 승리했으나 준결승에서 김정진(남양주시청)에게 0대2로 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이광철 무안군청 검토부 감독은 "지난해 추계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며 매우 기쁘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다가오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